



# 아기여우 여울이의 기후여행

글 김현태 그림 김채연



아기여우 여울이의  
기후여행



“불이야!”


여울이가 사는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연일 계속 되는 산불로 인해 어쩌면 산 전체가 검게 다 탈지도 몰라요.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







여울이의 기도가 통했던 걸까,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굵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비다.”

비가 내린 덕에 다행스럽게도 산불은 꺼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날며칠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비야, 이제 그만 좀 와. 제발 좀 멈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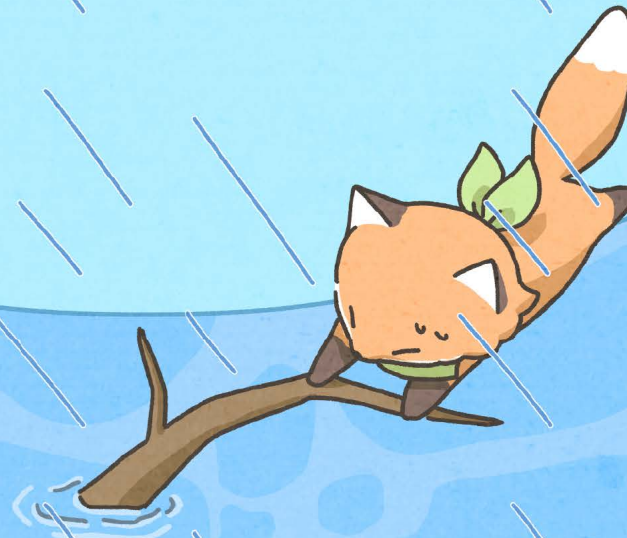
비가 아주 많이 내려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어요.  
지붕이며 책가방이며 나무 등이 다 날아갔어요.

도대체 날씨가 왜 그런 걸까요?  
못된 마녀처럼 왜 이리 심술을 부리는 걸까요?



‘우리 마을은 난리인데 다른 곳에서 사는 동물들은 별일 없을까?’  
여울이는 다른 동물들은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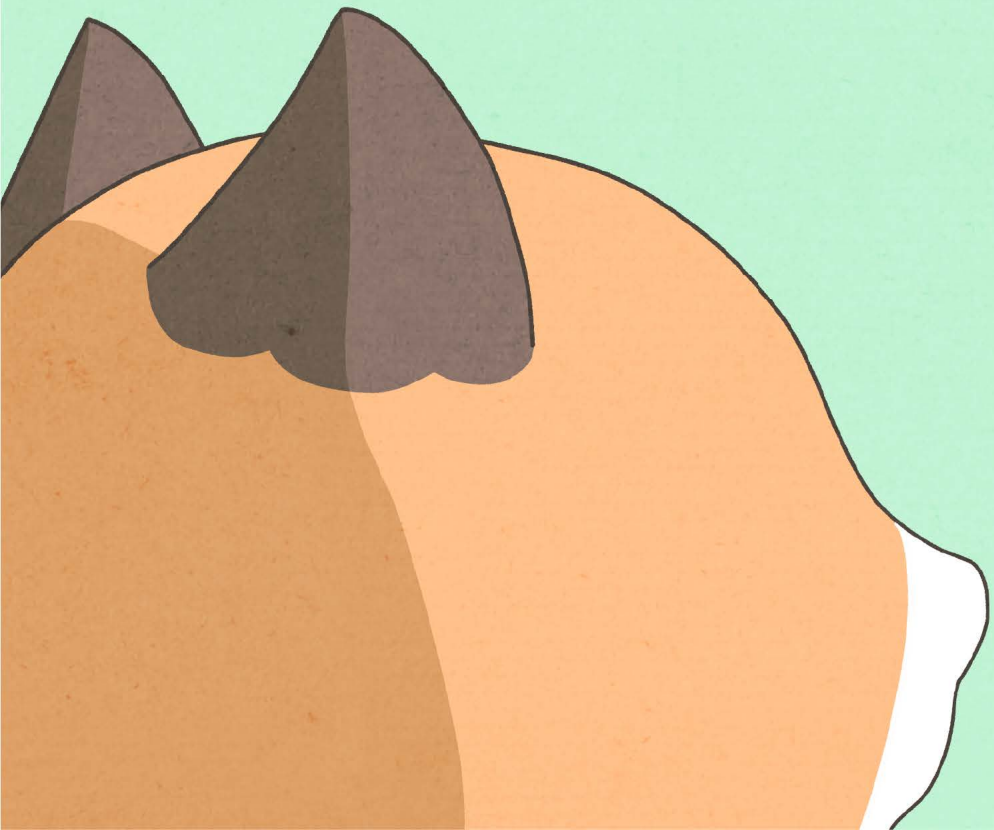
켁켁켁.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울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 아주 키가 큰 기린이 있었어요.  
기린은 계속해서 ‘čekček’ 헛기침을 했어요.

“기린아, 왜 그래?”  
“목에 알약이 걸렸어.”

“어서 물을 마셔. 알약을 꿀꺽 삼켜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물이 없어. 물이 다 사라졌어.”

“물이 다 사라졌다고?  
...어... 그러고 보니 나도 요즘 물을 못 봤네.  
물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

“좋은 방법이 있어! 침을 모아서 약을 꿀꺽 삼켜 봐.”

“해봤어. 그런데 내가 목이 너무 길어서 그것도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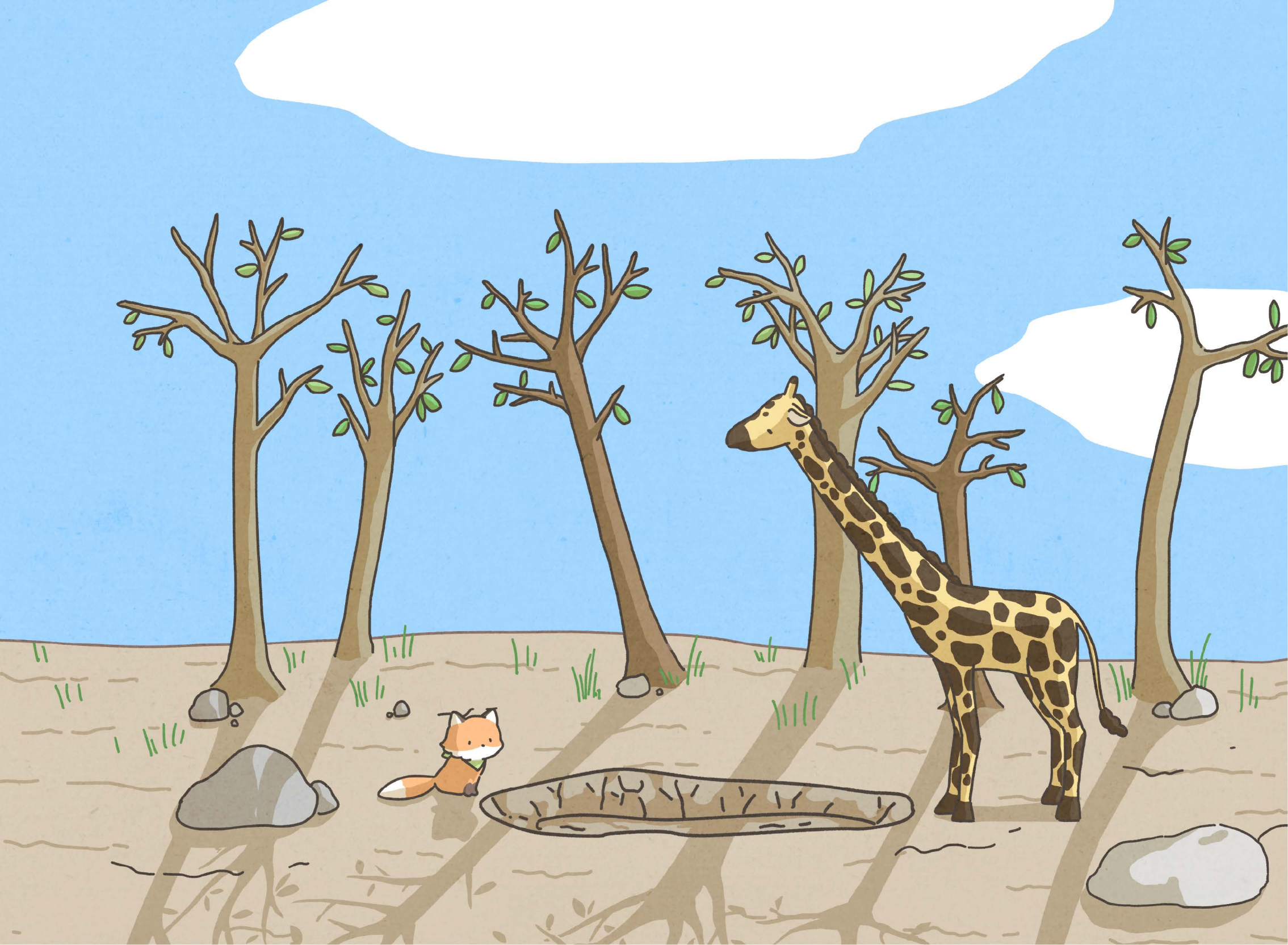


"그럼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네. 약이 너무 써.  
왜 하필 난 목이 길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물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번에는 여울이가 북극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울이는 북극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북극곰이 뽀뽀- 부채를 부치고 있었어요.

‘여긴 북극인데 왜 부채질을 하고 있지? 추울 텐데...’





그런데 또 이상했어요.  
다른 북극곰이 이번에는 손선풍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긴 북극인데 왜 손선풍기가 필요한 걸까?"  
여울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울이는 북극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북극곰아, 여기는 추운 북극인데 웬 선풍기야?”

북극곰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니?”





“오늘 같이 더운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온도 계속 올라가.  
자, 봐. 빙산이 녹고 있잖아.”







퍼어

얼어

퍼어

얼어

얼어

북극곰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빙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울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너진 빙산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 정말 큰일이네. 이러다 빙산이 다 녹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여울이가 지구 한 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갔어요.  
여울이는 그 섬에 사는 토끼들을 발견했어요.



여울이가 토끼들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토끼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토끼들은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뭔가 분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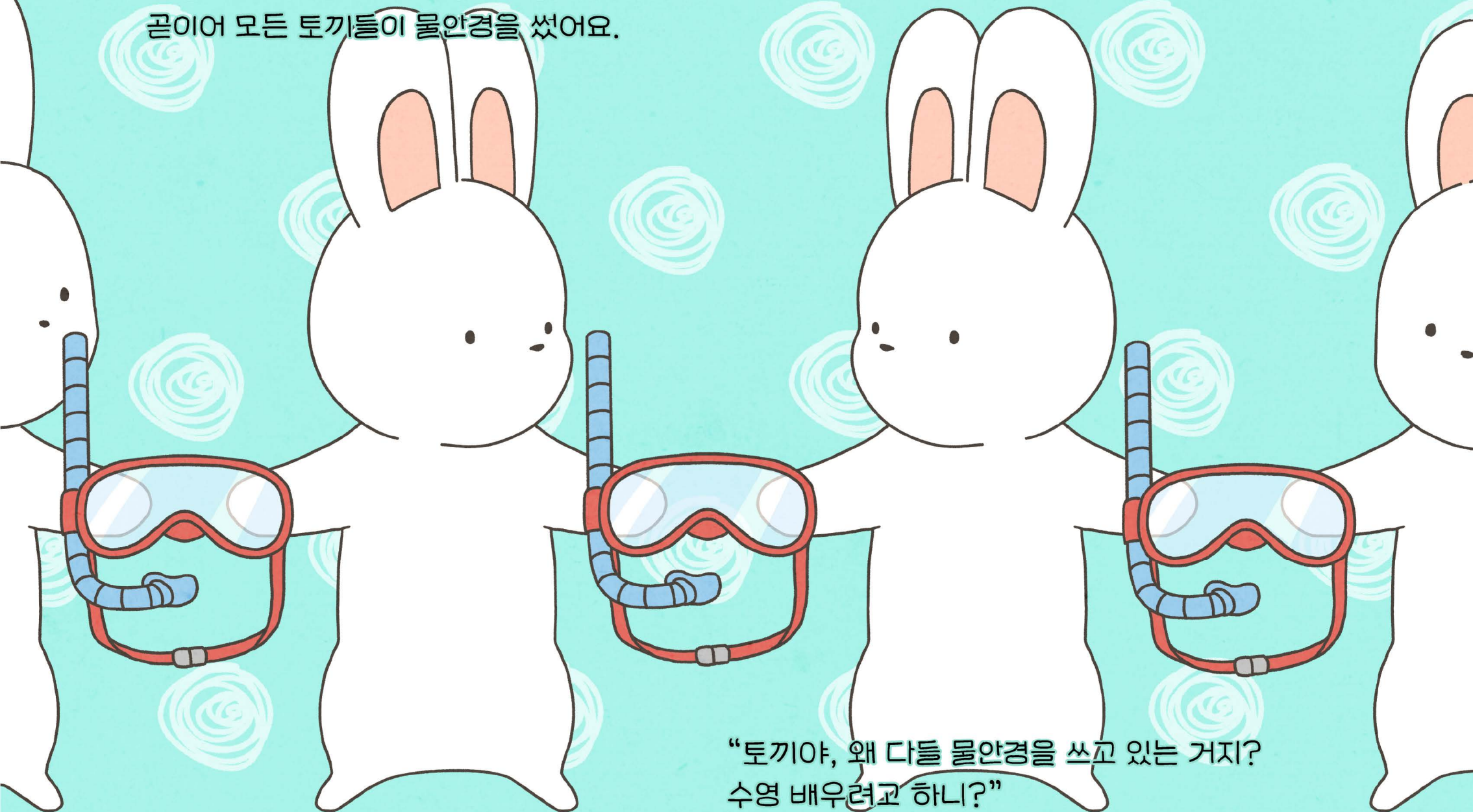




“자, 물안경 받아.”

대장 토끼가 토끼들에게 물안경을 나눠줬어요.

곧이어 모든 토끼들이 물안경을 썼어요.



“토끼야, 왜 다들 물안경을 쓰고 있는 거지?  
수영 배우려고 하니?”



“우린 어쩔 수 없이 수영을 배워야 해.”

“어쩔 수 없이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바다에서 물놀이하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야. 살기 위해선 수영을 미리미리 배워놔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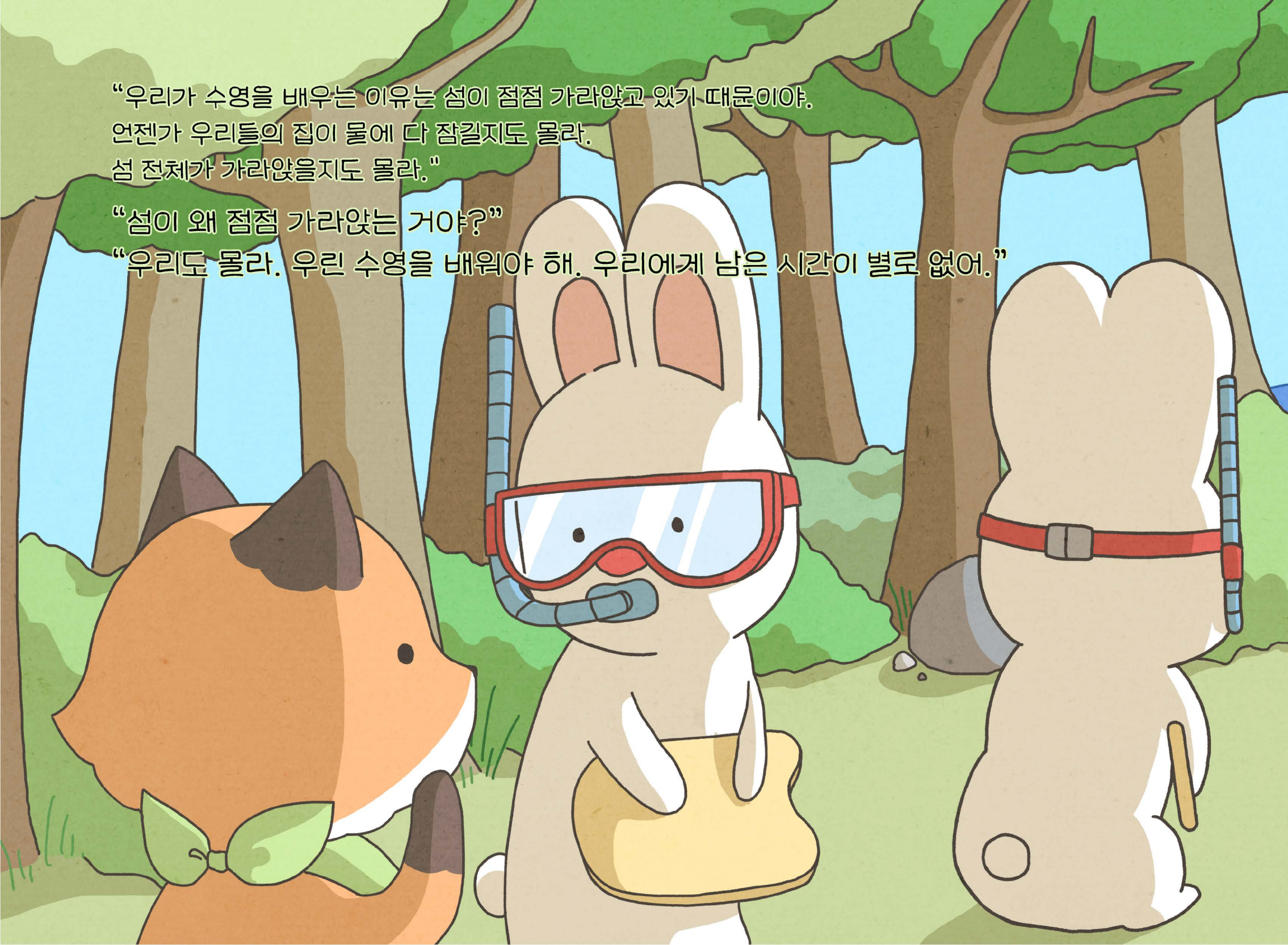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섬이 점점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야.  
언젠가 우리들의 집이 물에 다 잠길지도 몰라.  
섬 전체가 가라앉을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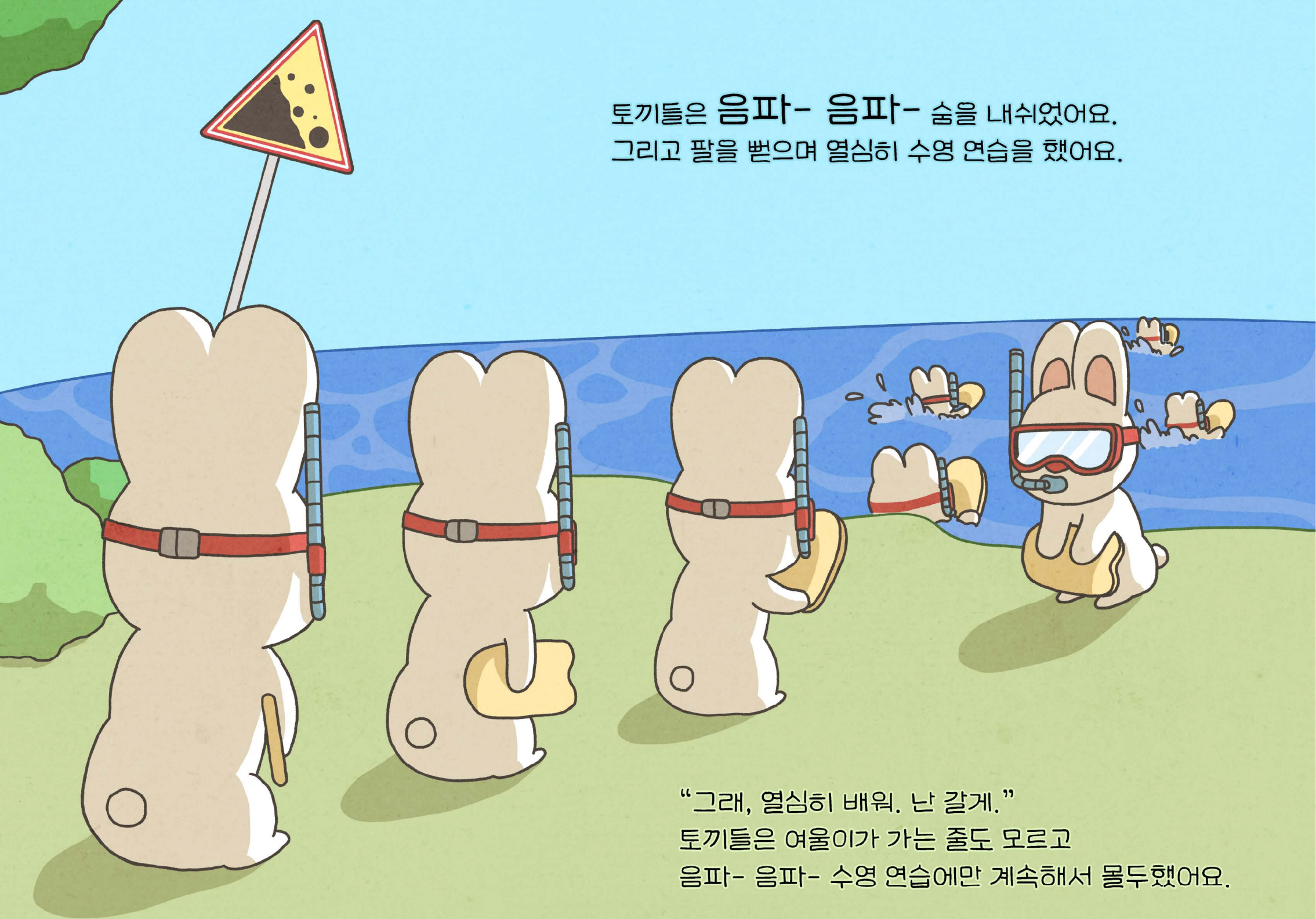
“섬이 왜 점점 가라앉는 거야?”

“우리도 몰라. 우린 수영을 배워야 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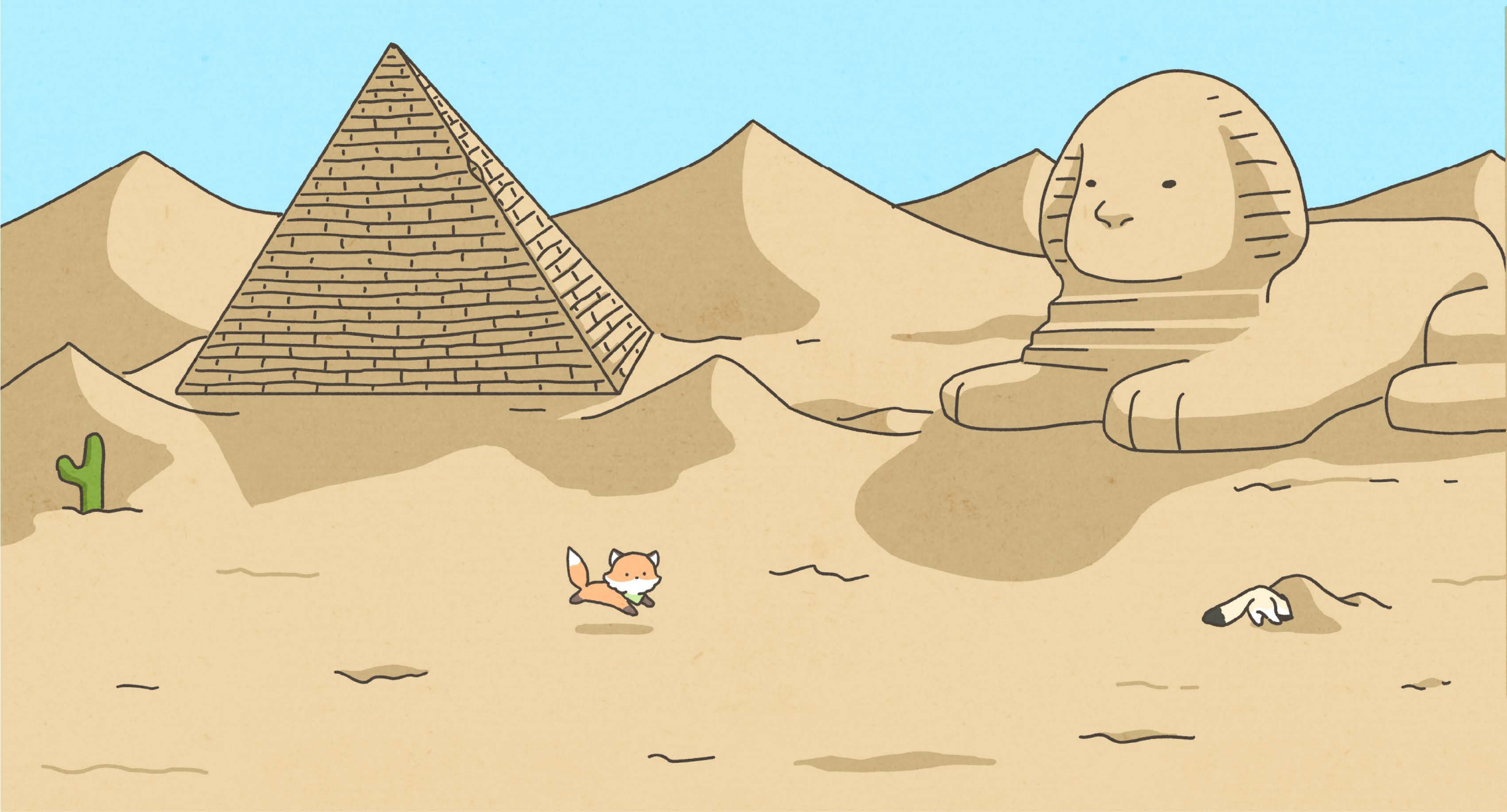


토끼들은 음파- 음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팔을 뻗으며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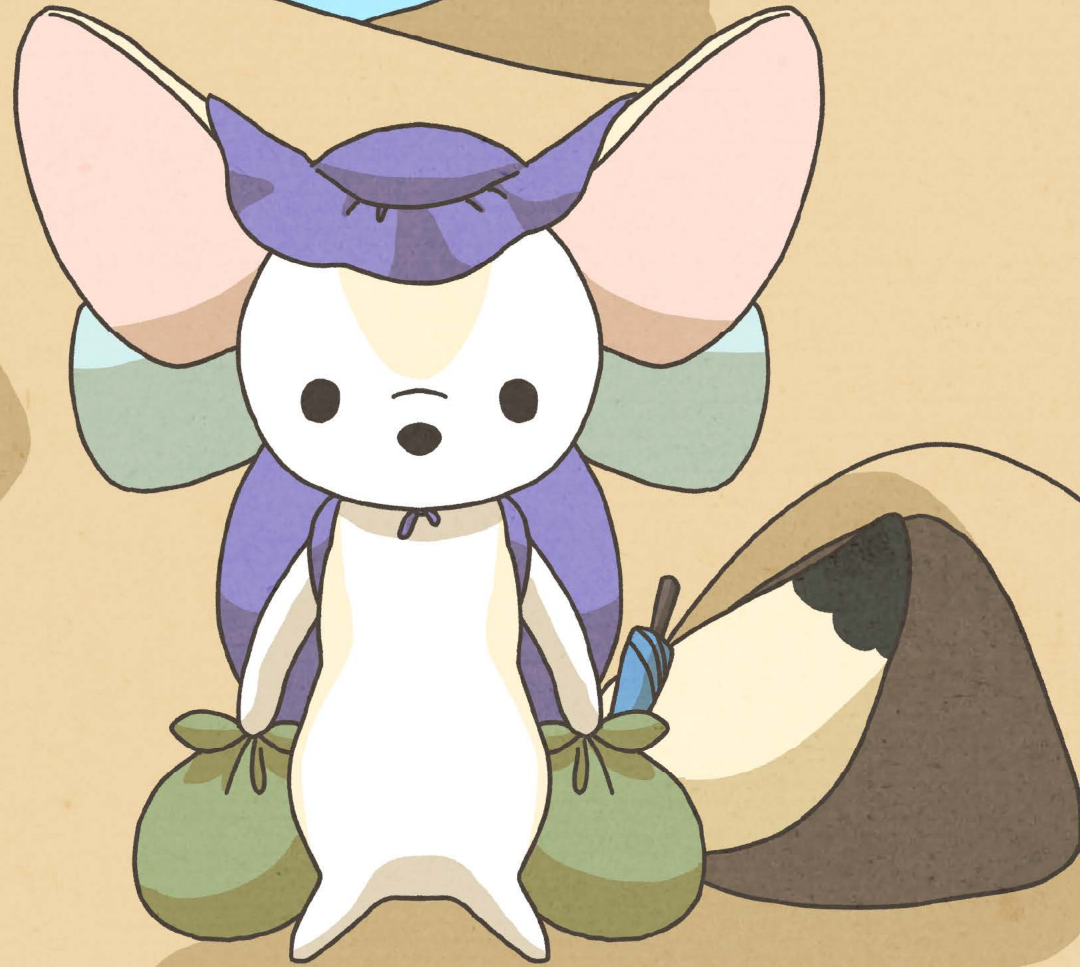
“그래, 열심히 배워. 난 갈게.”  
토끼들은 여울이가 가는 줄도 모르고  
음파- 음파- 수영 연습에만 계속해서 몰두했어요.

이번에는 여울이가 사막에 갔어요.  
여울이는 그곳에서 사막여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막여우의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사막여우가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양손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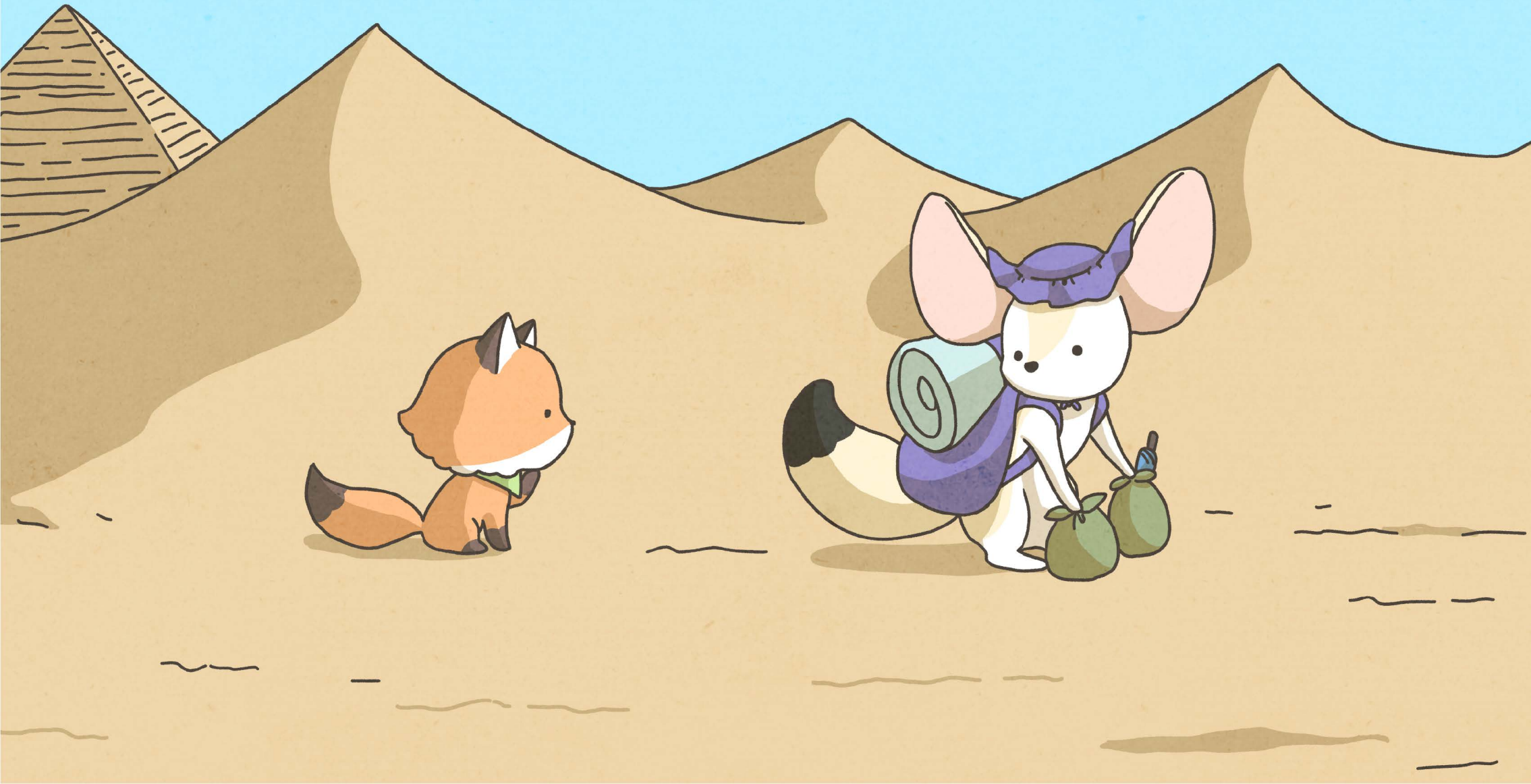
“사막여우야, 너 어디 가니?”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해.”  
“이사? 어디로 가려고?”



"여기 사막은 너무 더워."

"사막여우야. 너는 원래 더운 사막에 살잖아. 그런데 어딜 간다는 거야?"

"그래, 더운 사막이 내 집이지. 그런데 사막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그렇구나. 도대체 왜 사막이 더 뜨거워진 걸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난 떠나야겠어. 안녕,”

사막여우는 손을 흔들더니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났어요.





긴 여행을 마친 여울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울이는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니 즐겁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이유는 만났던 동물들이 뭔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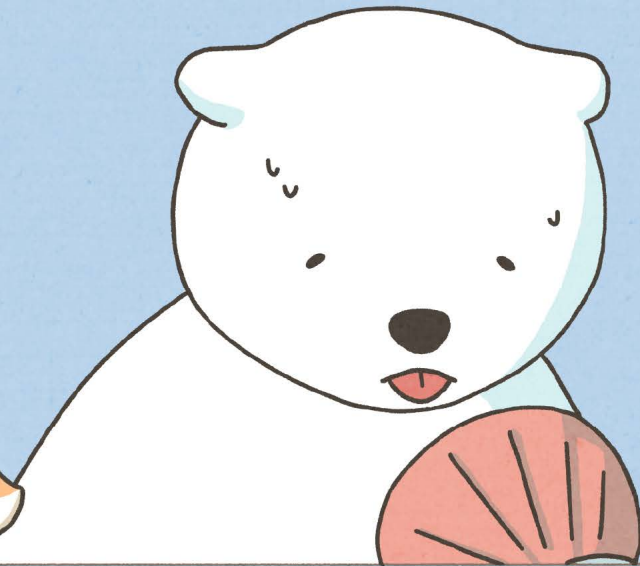


북극곰은 북극인데  
더워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린은 물이 없어서 고생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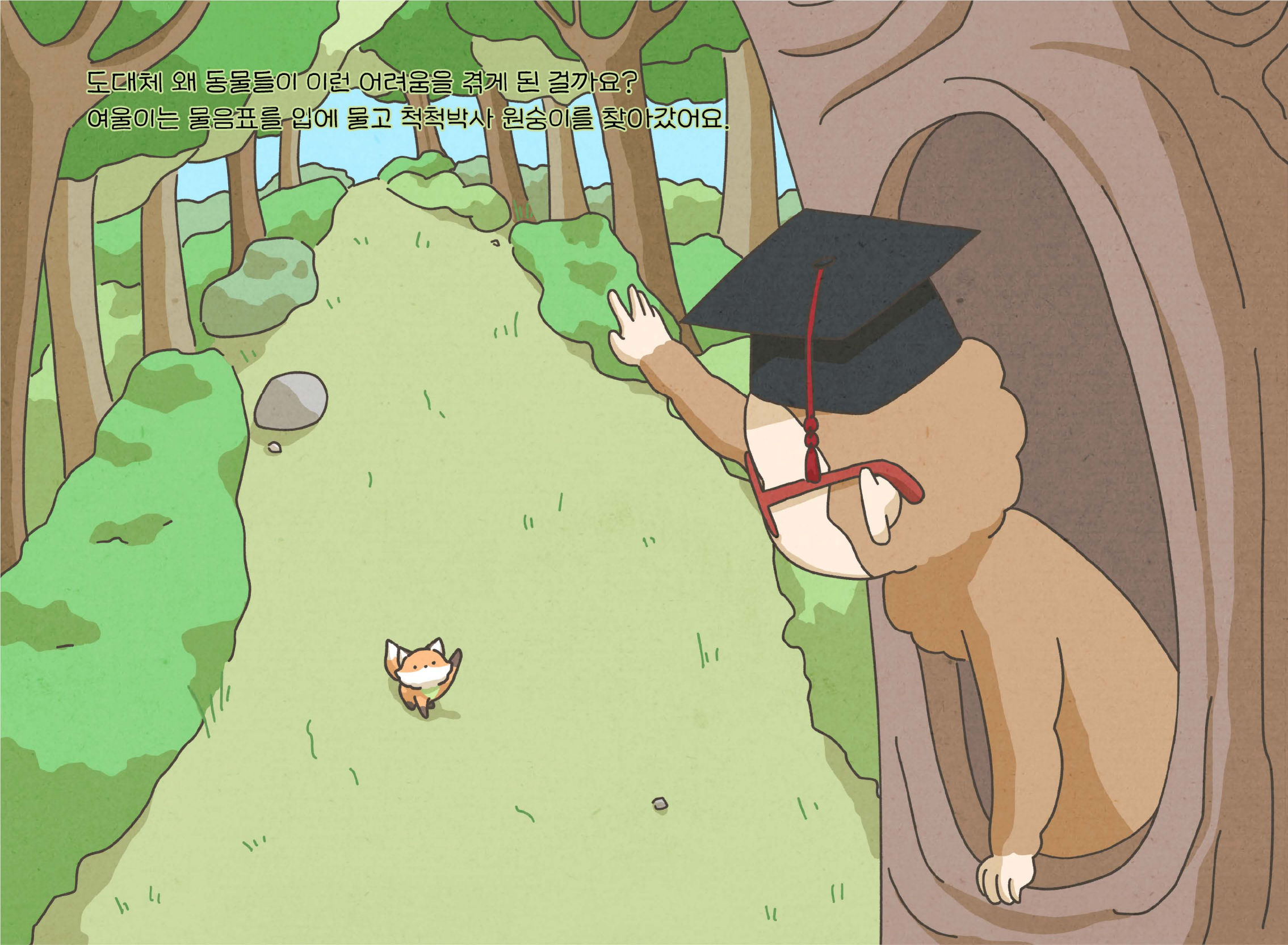
토끼는 섬이 곧 가라앉을 거라며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막여우는 사막을 떠났어요.





도대체 왜 동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걸까요?  
여울이는 물음표를 입에 물고 척척박사 원숭이를 찾아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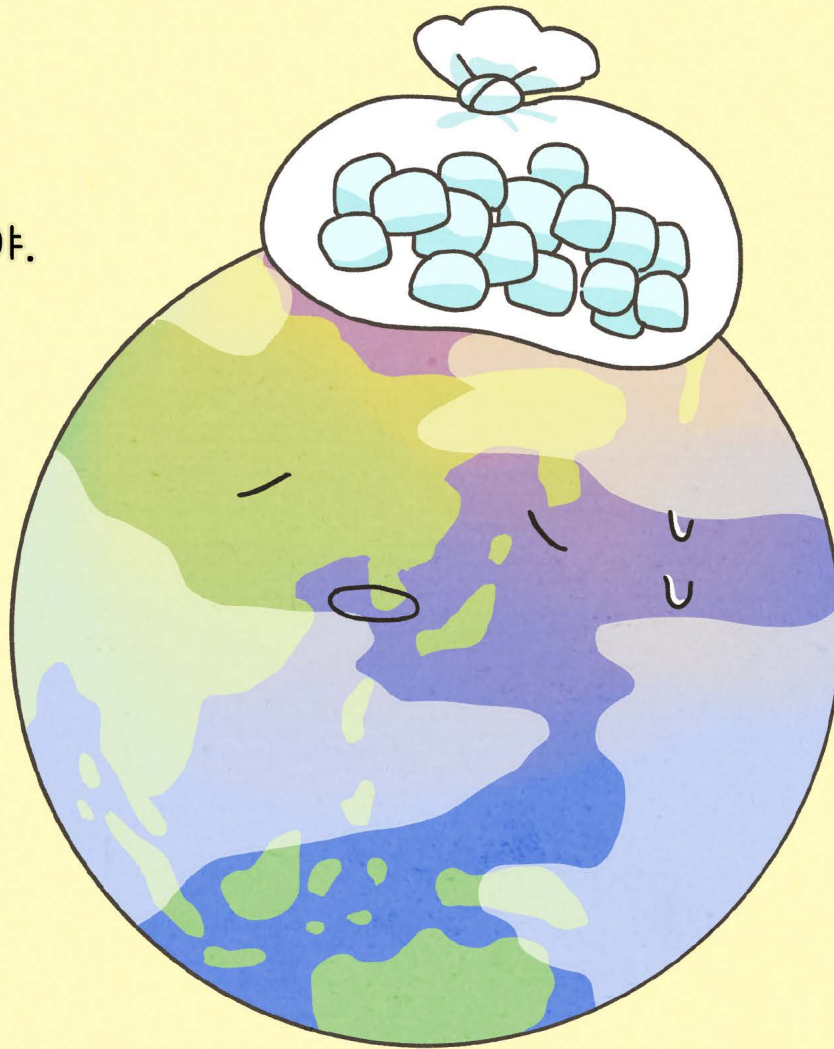


물도 사라지고, 북극의 빙산도 점점 녹고, 섬도 가라앉고, 사막은 더 뜨거워지고...

척척박사님,  
왜 그러는 걸까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야.



지구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어.



지구온난화요?  
기후변화? 그게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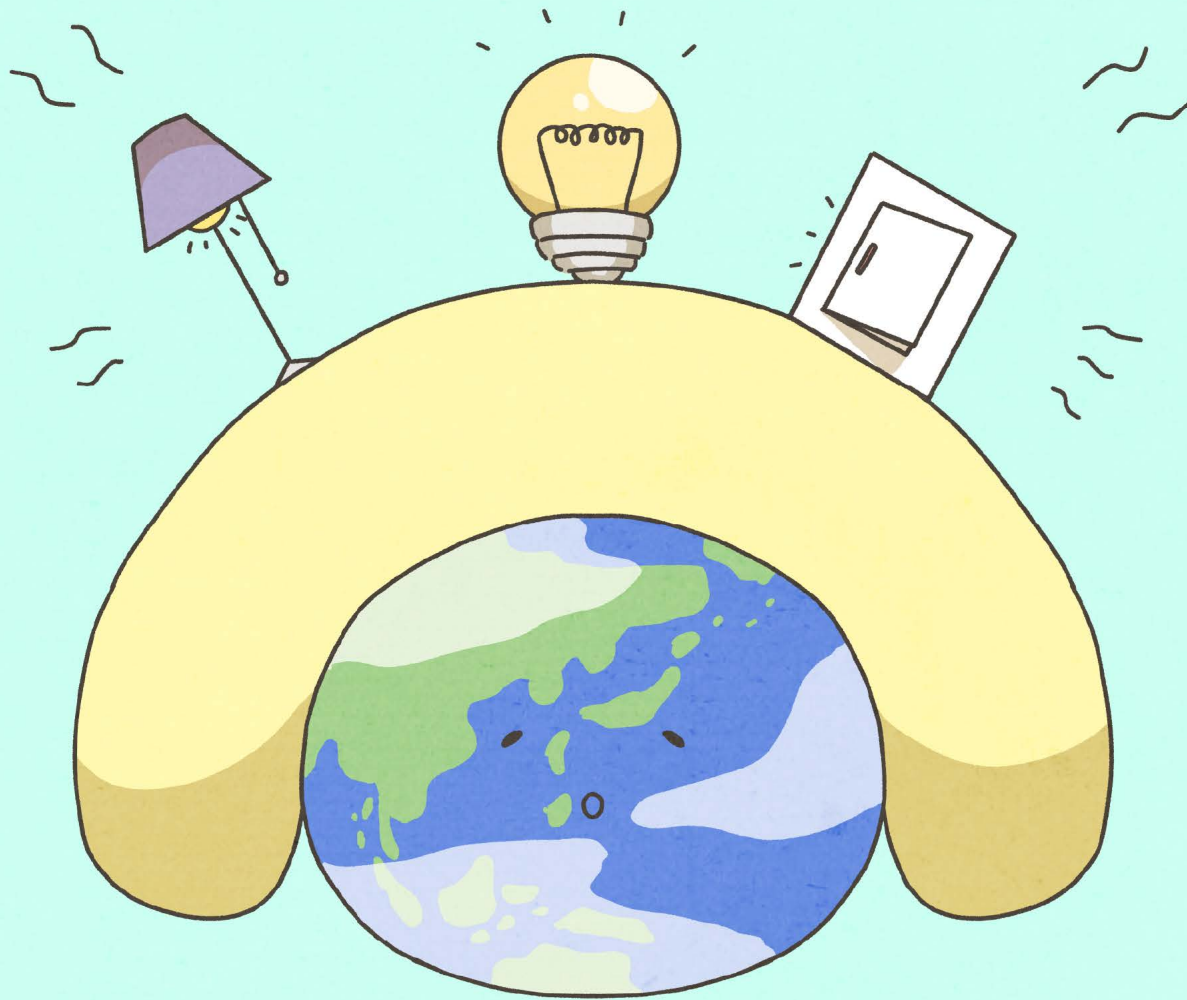


아주 두꺼운 이불을 종일 덮고 있다면 어떨겠니? 갑갑하고 땀이 나고 열이 나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두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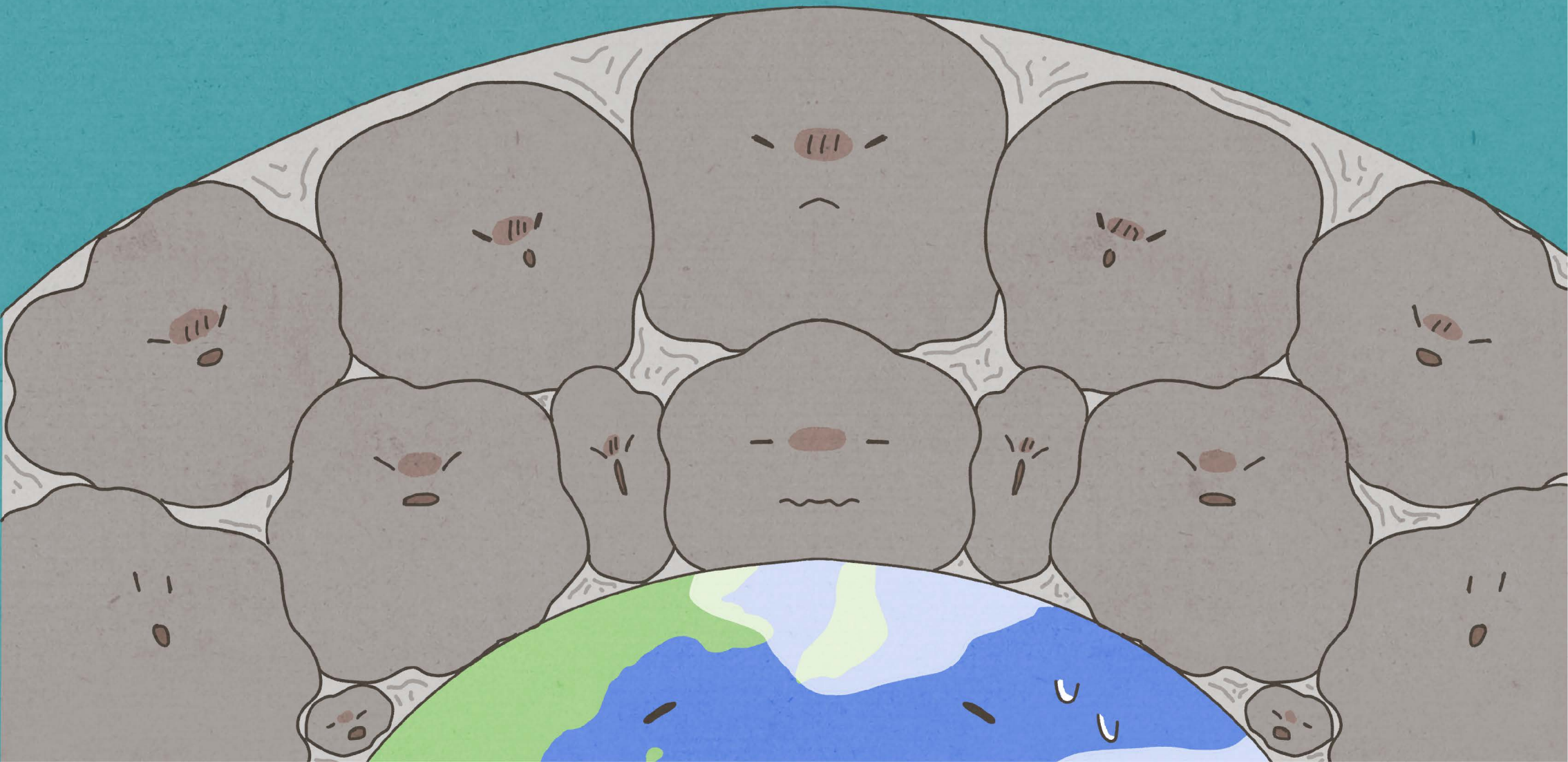


밥과 반찬 등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서 버리게 되면





공기 중의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돼,  
이 온실가스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불을 더욱 두껍게 만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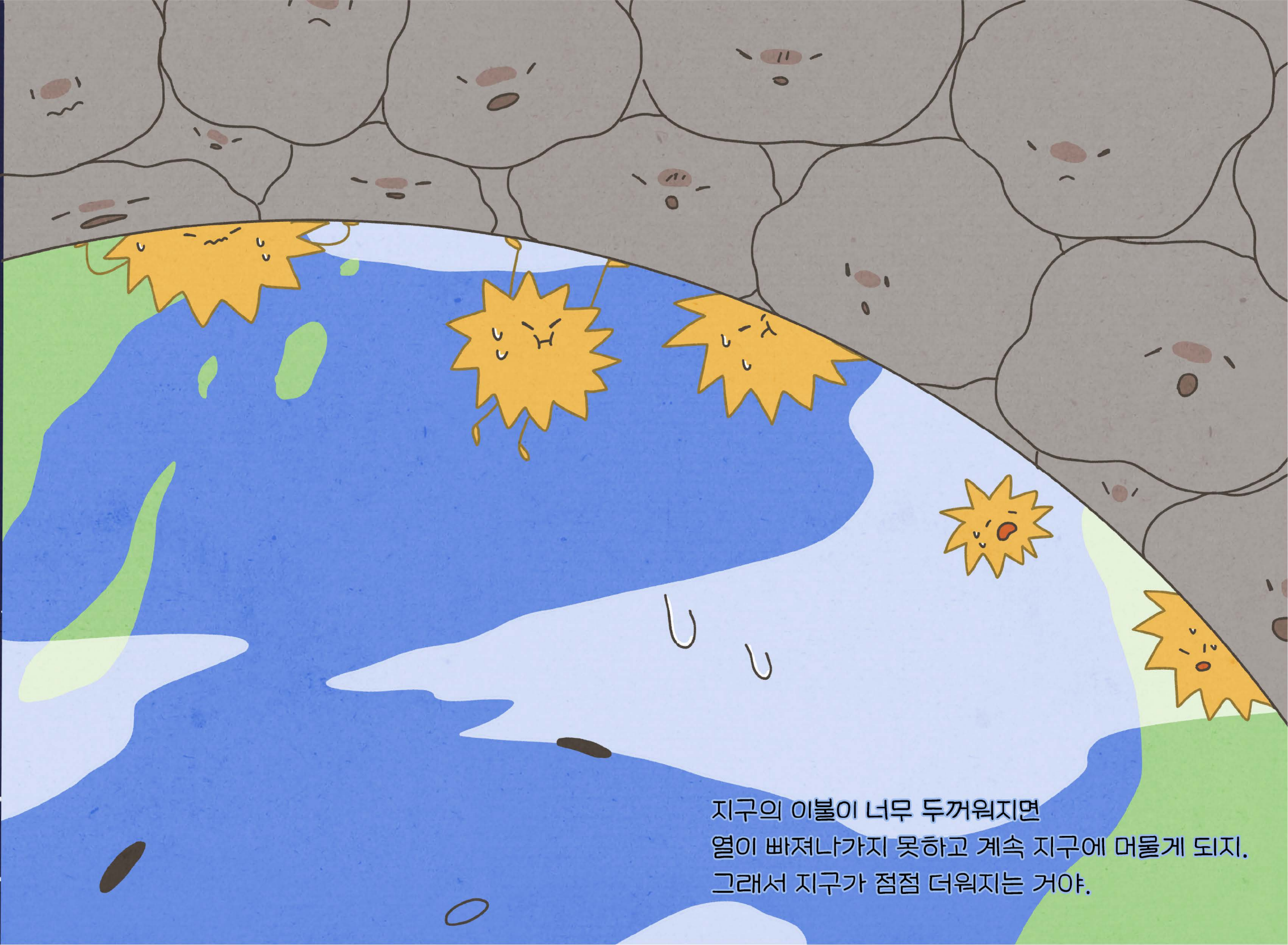




태양에서 온 뜨거운 열은 땅에 부딪힌 뒤  
다시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가야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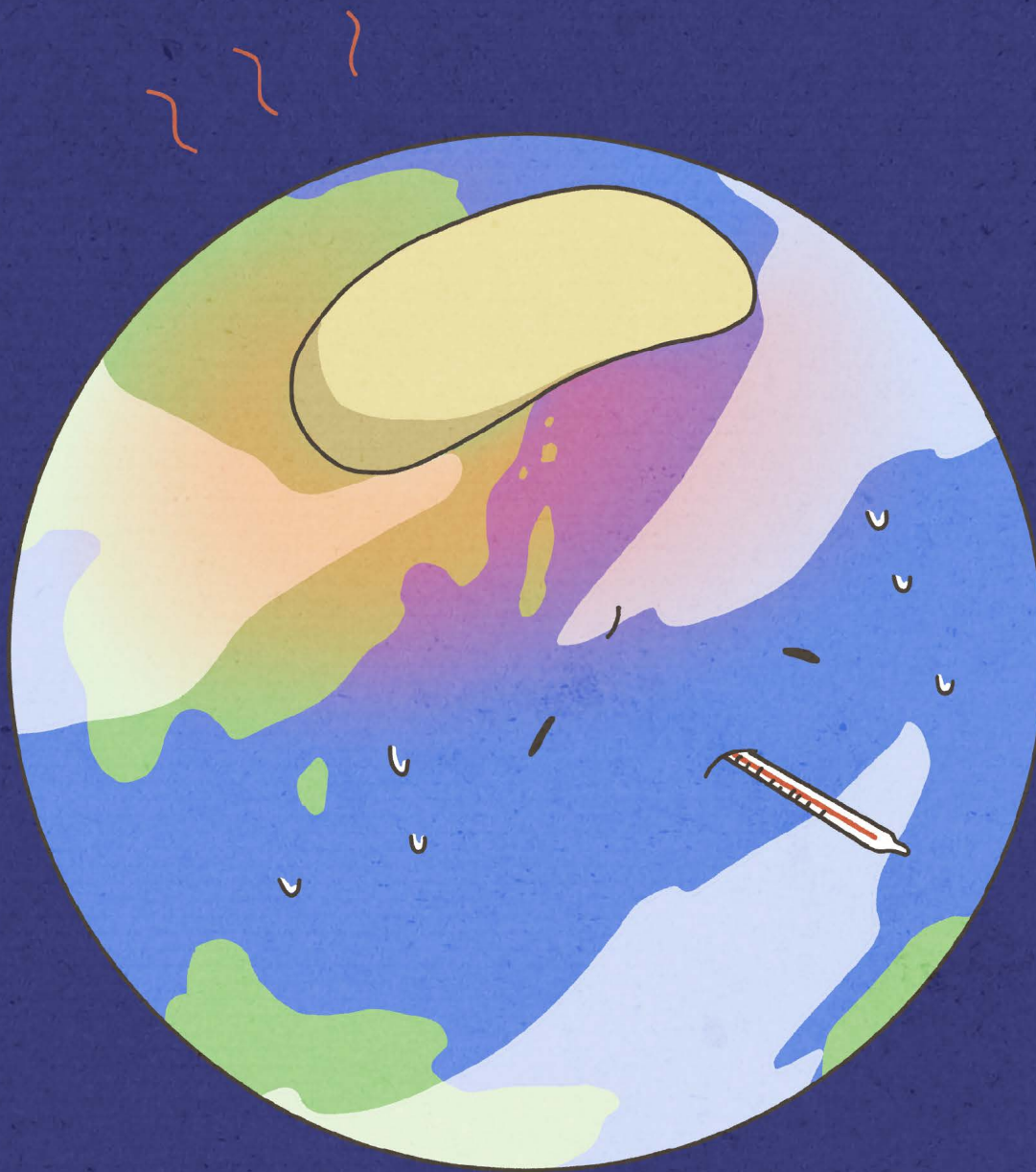






지구의 이불이 너무 두꺼워지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구에 머물게 되지.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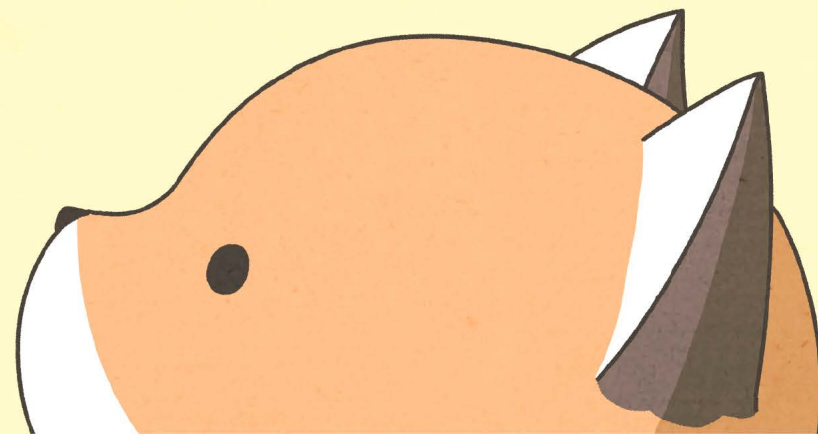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날씨가 변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야.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





북극이나 남극의 빙산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면



바닷물이 넘쳐서  
바다보다 낮은 지역의 도시는  
물에 잠기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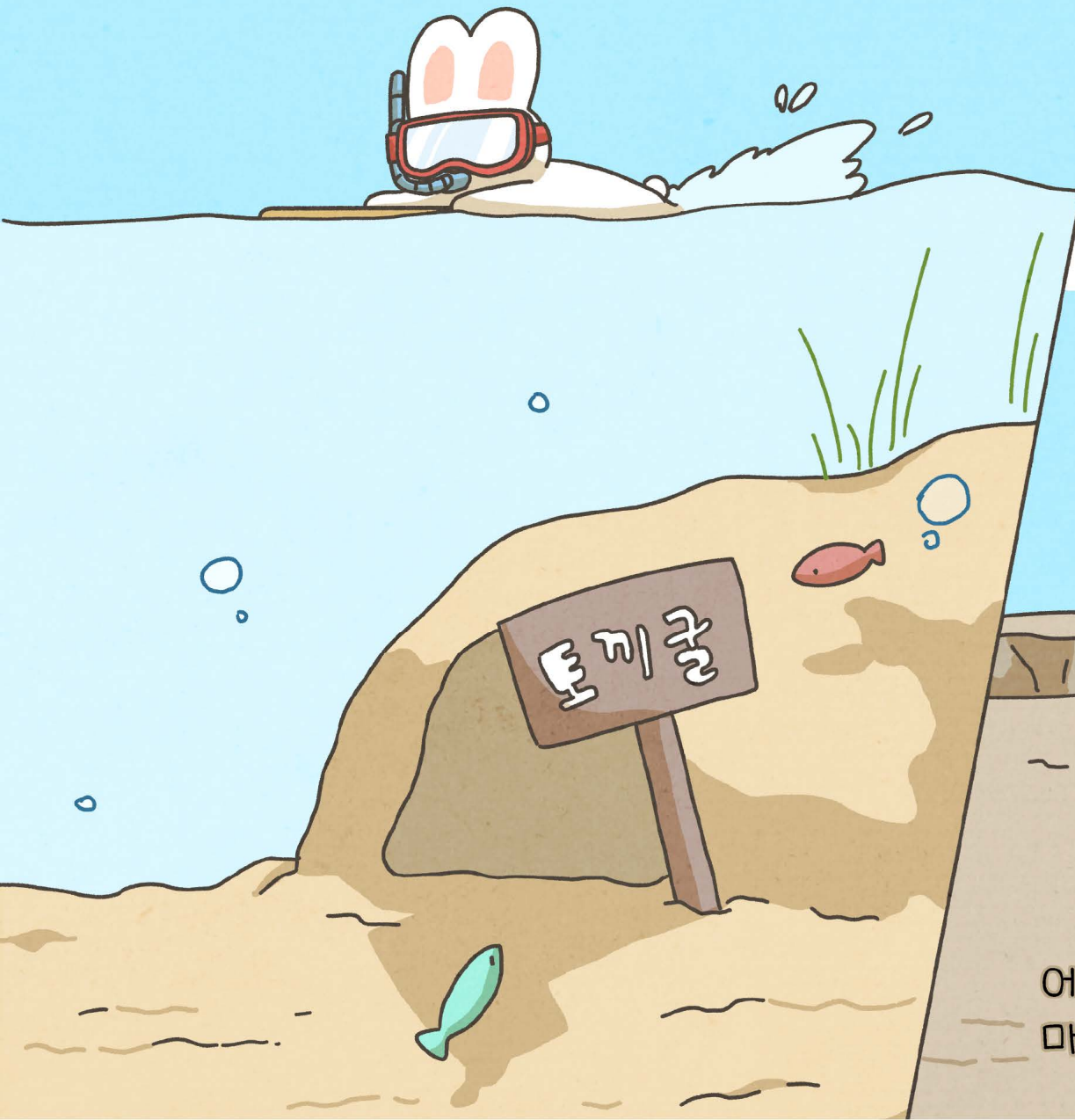
또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태풍과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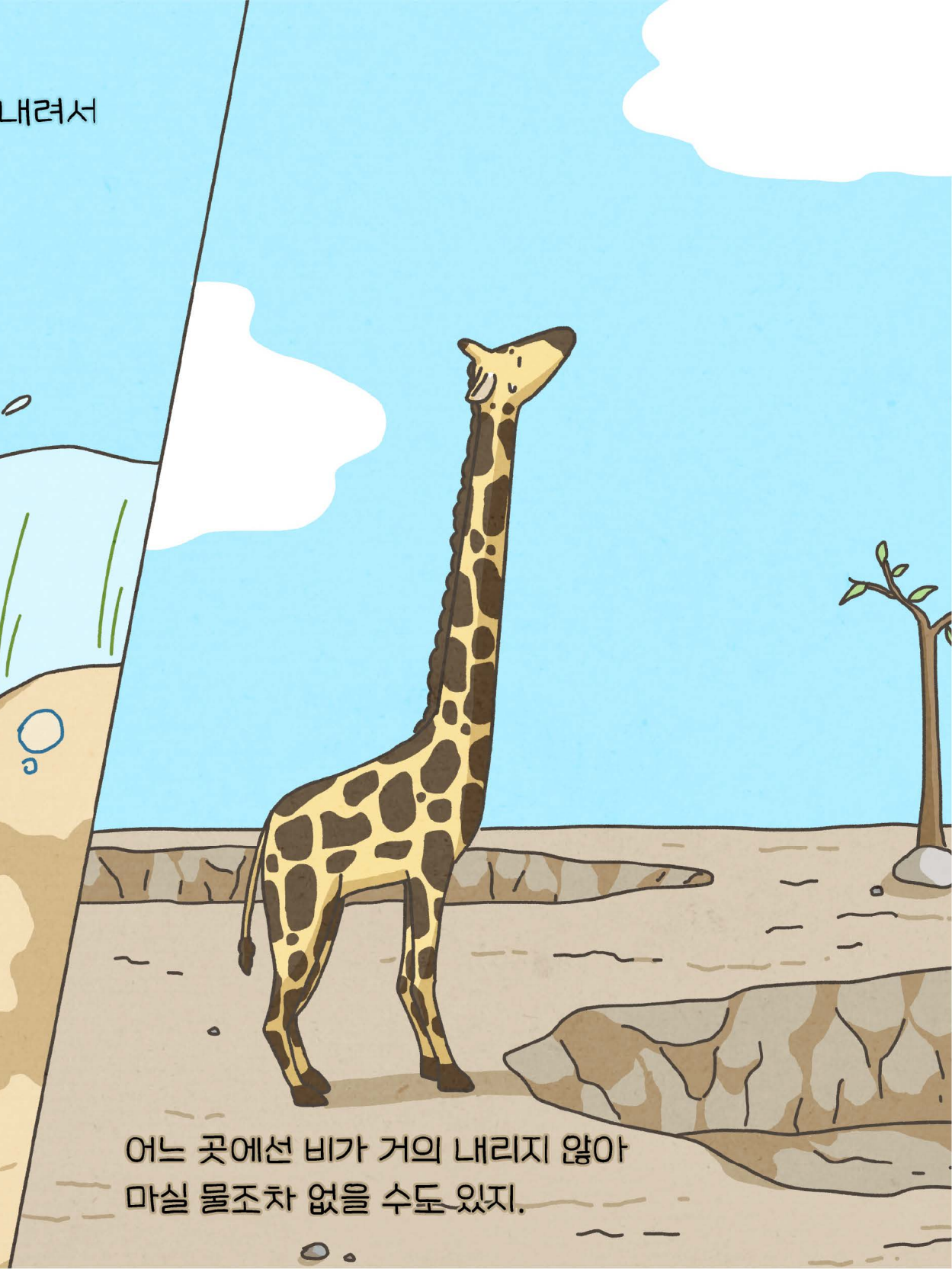
사막은 더더욱 뜨거워지지.



그리고 어느 곳에선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사는 곳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어느 곳에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마실 물조차 없을 수도 있지.



우리는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잘 돌봐야 해.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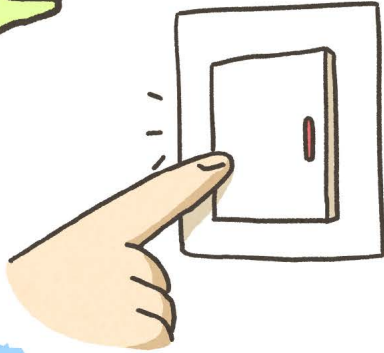




이제부터 나도 지구를 잘 돌볼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전기 아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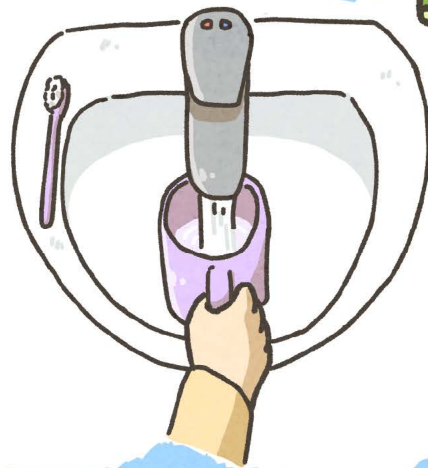


녹색 식물 키우기



지구를

물 아껴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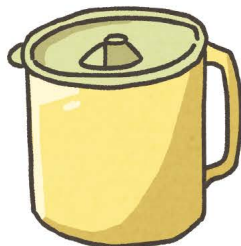
지키는



일회용품 안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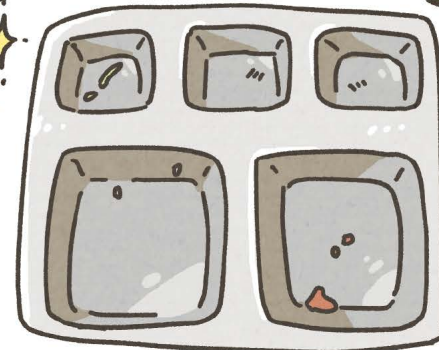
×



○

방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타기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765-01

OPEN



공공누리

출제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979-11-6988-024-4(75450)